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소리꾼 채수정씨



“세계 공연계에 우리의 소리 당당히 알릴 것”

지난해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문에 참가했던 소리꾼 채수정(43·전남대 국악과 겸임 교수)씨는 아쉬움이 많았다. 경연이 끝난 후 채씨를 포함해 두명이 동점을 기록했고, 대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채씨는 최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최우수상을 만족해야했다. 1년간 절치부심했던 채씨가 올해는 활짝 웃었다.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막내린 제 19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당당히 대통령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쉬움이 많긴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1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깨우쳐야 할 숙제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 숙제들을 풀기 위해 더욱 연습에 매진했던 게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습하고 고민해서 훌륭한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음악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채씨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소리꾼이다.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흥보가 이수자인 채씨는 이날 경연에서 ‘흥보가 놀부에게 비는 대목’을 불러

영예를 안았다.

채씨가 소리에 입문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강사로 나왔던 명창 박승희 선생을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가야금을 전공하기 위해 국악과를 지원했던 채씨는 목소리를 들은 선생의 권유로 소리에 빠져들었다.

“제가 하는 동편제 소리는 남성답고 처음과 끝이 분명한 소리입니다. 제가 당치가 커서 보통 여성 소리꾼보다 소리를 크게 부르고 당당하게 내지르는 게 장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강 악을 조절하고 소리를 대비시키는 섭세함은 제가 앞으로 더 갚고 달아야 할 부분이구요.”

우리소리를 널리 알리려는 채씨의 활동폭은 굉장히 넓다. 지난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스페인 그룹 티티로빈과 ‘흥보가’를 협연하는 등 우리 소리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다. 또한 광대 콘테스트에서 기획일을 담당하고 서울 인사동에서 거리 소리판을 꾸리는 등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 동편제 복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전통을 세우는 일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다. 흥보가와 적벽가 완창무대를 통해서는 실

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우리 전통 판소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해내는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 공연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꿈입니다.”

/김미운기자 mekim@kwangju.co.kr

▲제19회 임방울국악제 입상자

◇판소리 명창부 ▲대상=채수정 ▲최우수상=정수인 ▲우수상=김자영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한혜선 ▲우수상=김주연 ▲판소리 학생부 ▲금상=김경미·이정현·이승훈 ▲기악 일반부 ▲최우수상=김지현 ▲우수상=손정민 ▲기악학생부 ▲금상=임완섭·이선경·김도효 ◇무용 일반부 ▲최우수상=한진희 ▲우수상=박지혜 ◇무용학생부 ▲금상=정민근·정소현 ▲시조일반부 ▲최우수상=박학미 ▲우수상=이현택 ▲기야금병창 일반부 ▲최우수상=김미성 ▲우수상=이연주 ▲농악일반부 ▲최우수상=박성우 ▲우수상=강신일.

키위와 유사…단맛 좋아 오래전부터 식용



<109> 다래

다래는 다래나무에 속하는 낙엽활엽 덩굴식물로 산이나 토양이 깊고 부식질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다래는 단맛이 좋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이용돼 왔다. 고려가 요인 ‘청산별곡’과 천연기념물 제251호로 지정된 창덕궁 비원 다래나무를 통해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다.

다래와 유사한 과일 ‘키위’(찰다래)는 뉴질랜드에서 중국 다래를 상품성 좋은 과실로 육성한 것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전남도선관위 곡성서 깨끗한 선거문화 홍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곡성 선진강변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선진강 마라톤 대회’에 직원 100여명이 참가해 깨끗한 선거문화 및 정치후원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수공 주암댐관리단 보성서 자원봉사활동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은 최근 보성 문덕면 용암2리 교촌마을을 찾아 노후전선과 전기구를 교체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특수임무유공자회 상무공원 호수 정화활동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시지부(지부장 박진영) 소속 150여명의 회원들이 최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호수에서 짐수복을 착용하고 수중에 버려진 쓰레기를 건져�으며, 회원 가족들은 공원 주변을 청소했다.

‘세로토닌 드럼클럽’ 합동 창단

삼성생명·호남 8개학교 동참

삼성생명(부사장 과상용)과 세로토닌 문화원(이사장 이시형)은 26일 전진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삼성생명 호남지역사 업부 연수실에서 ‘세로토닌 드럼클럽’ 합동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드럼클럽을 창단하는 광주 두암중·문화중·서광중·용연학교, 전남 목포 해인여중·장성황룡중, 전북 고창여중·김제 금성여중 등 8개 학교 교장 및 학생 100여명을 비롯해 과상용 삼성생명 부사장, 이시형 세로토닌 문화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해당학교에는 드럼클럽 후원증서와 인증패가 전달됐다.

‘세로토닌 드럼클럽’은 이시형 박사가 타 악연주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자는 취지에서 2006년 처음 만들었다.

삼성생명과 세로토닌 문화원은 지난 5일

한국 입양 출신 장 뱅상 플라세씨 佛 상원의원 당선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입양인 출신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현재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방 의회 위원으로 프랑스 녹색당 사무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장-뱅상 플라세(43)는 25일 실시된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에서 일드프랑스 에온 지방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플라세 당선자는 8세 때인 1975년 프랑스로 입양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98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2001년 녹색당에 가입했다. 현재 녹색당 2인자인 사무부총장까지

올랐으며, 교통담당 부의장직을 수행해왔다.

플라세 당선자는 부유했던 입양 부모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뒤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금융기업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르 피카로는 보도했다. 플라세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회기부터 6년 임기의 상원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규모 적십자 바자회 내일 서울 코엑스서 개최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적십자 바자회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선향·사진)가 주관하는 이번 바자회는 유령브랜드 의류, 백화점 기증품, 화장품, 산지 특산품, 각종 생필품을 시장과 보다 20~6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여개국 외교사절부인들이 직접 구운 쿠키, 쿠키 및 세계 다양한 음식과 개인 소장품, 각 나라의

공예품을 직접 판매하며, 19개 정부 부처 국무위원·차관부인 및 32개 금융기관장, 정부투자기관 부인들도 직접 판매에 나선다.

바자의 수익금은 조손 가정,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돕기에 전액 사용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제문화교류학회장에 김용호 교수



김용호 광주대 항공서비스 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한 국제문화교류학회장에 선출됐다. 김용호는 제1회 국제문화교류학술대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장정식 협회장 다문화가족 산업시찰



장정식 UNESCO 광주·전남협회장은 28일 화순군에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 35명을 초청해 광양제철, 광양항을 견학하는 ‘다문화 가족 초청 산업시찰’ 행사를 연다.

/윤영기자 penfoot@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010-9458-1896.

종친회

▲장흥위씨 광주 종친회(회장 위인백) 3/4분기 모임=27일(화) 오후 6시 30분 화랑궁궐(예술의 거리) 입구 011-602-9727.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이사회 회의=29일(목) 오후 11시 30분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 (1577-6065) 개통, 지역 취업지원센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 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idonggf.familynet.or.kr/>)

▲㈔우리문화예술원 통합업무 공모=폐선부지 현파른길공원의 사진과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모(선정되신분들에게 소정의 상품드림) 062-523-0474.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장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062-223-919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

www.forchild.or.kr

모집

▲행복(happy)한 부부교실=10월 10일(월)~10월 31일(월) 동부교육

지원청 대회의실 오후 7시~9시. 대상은 자녀와 소통하고픈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 광주 학부모지원

장정식 UNESCO 광주·전남협회장은 28일 화순군에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 35명을 초청해 광양제철, 광양항을 견학하는 ‘다문화 가족 초청 산업시찰’ 행사를 연다.

/윤영기자 penfoot@

센터 홈페이지(<http://hakbumo.gen.go.kr>) 062-605-5738, 5652.

부모

▲최근남씨 별세 주원·주선·주민·민정·희자씨 부친상=발인 2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8분향소 062-231-8900.

▲김인숙씨 별세 최성호·선·은설씨 모친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마음 까지 편 양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장례식장 09시~00분
•발인: 9월 28일 09시~00분
•장지: 선교동 선교

●연락처: 227-4385

●장례식장 09시~00분
•발인: 9월 27일 09시~00분
•장지: 선교동 선교

●연락처: 227-4381

●장례식장 09시~00분
•발인: 9월 27일 09시~00분
•장지: 선교동 선교